



앞을 타리에는 님이 한 마리 앓아 있었다.

山莊 뒤 森林 오른

쪽 山 밑으로 는 멀리

松林에 싸인 兩三村

家가 보이고 村家 앞

알으막한 野山을 지

나면 앞이 탁 터지며

시원한 江上風景이

나타나서 一葉扁舟

에 漁翁이 한가로이

즐고 있고 江가에는

牧童이 소를 타고 돌

아오며 노란 저고리

에 푸른 치마를 입은

村색시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지나간

다. 草岸에는 나귀

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중에도 牧童과 광

우리를 이고 가는 색

시가 참으로 아름다

움게 그려져 있다.

畫幅의 右上 空間

에는 能熟한 筆致로

다음과 같은 畫題가

가득이 쓰여 있다.

東狂徐生見而佳之挹筆興唱
作爲歎詩
此簇吾園張君爲畫吾 伯父

卜居山莊者也圖旣成不可無

題故 山子敢以拙構拜題其幅

曰

眉山嵯峨梨谷幽寂水石明麗

前記한 畫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山莊圖는 吾園이 眞景을 忠實히

寫生하여서 그 風景이 조금도 實景과 다름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當時 漢江邊의 閒寂한 風景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竹溪老台란 어떤 老風流客인지 若干 詳考해 보았으나 아직 모르겠고

梨谷山莊의 主人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겠다.

흔히 古書畫나 書籍에서 보는 바이거나 姓名이나 雅號 또는 地方의

名稱等을 表示하는 글자나 所藏印같은 것을 지워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

山莊圖도 亦是 畫題의 첫 줄 肩峯之南有谷曰 以下 三, 四字를 지워버리

고 畫題의 끝 줄 辛卯孟夏 以下 三, 四字를 지워버려서 山莊圖의 畫題를

쓴 조카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山莊의 主人인 그의 伯父되는 사람이 누

구인지를 모르게 되었다.

끝으로 이 山莊圖는 吾園의 四十九歲 때 作品이다.

大接型 誌石

林 憲 眞

이 大接型 誌石은 京畿道 江華郡 三海面 古墳 出土로서 德壽宮美術館에 收藏된 것은 西紀一九一三年 即 四十八年前이다.

本誌 第一卷 第五號에 潤松 全鑿弼 先生이 壺型誌石을 發表한 바도 있었는데 그와 形體가 다른 大接型 誌石을 紹介한다.

眉峯之南有谷曰□□□幽閑
山水絕奇侯誰居矣竹溪老台

癖愛峨洋杖屨往來張君吾園
爲寫其境髣髴眞面悅若對鏡



이誌石은 磁質이 나形體나 別로 優秀하지는 못하나 大接內面 中央部에 靑華로 草花文 비스갸게 그려 있고 그周圍에는 銘文이 縱書로서 打彫되어 있으며 그字劃만을 墨으로 메꾸어져 있다.

銘文에 依하면 折衝將軍(堂上官·正三品) 行龍驤衛副護

軍으로 지나던 林寬宜 夫婦墳誌石(貳個)이며 그 婦人 平山申氏는 壽二十八歲에 卒하여 乙亥 純祖十五年(西紀一八一五年) 三月에 葬하였고 그後 三十七年 辛亥 哲宗二年(西紀一八五一年) 閏八月에 林寬宜도 壽五十九歲에 卒하여 夫婦各葬으로 되었던 것을 그後 十八年 戊辰(高宗五年) 西紀一八六八年) 三月二十八日 江華 三海 五流川에 夫婦合葬한 것이며 이誌石은 合葬 當時인 高宗 五年(西紀一八六八年) 以前에 燒成된 것이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其一、男子墳誌石 全高 八·二cm 徑 一七·八cm

折衝將軍行龍驤 衛副護軍林公之墓
 諱寬宜字致弘癸丑 十一月初四日生卒于辛
 亥潤八月二十四日亥時本 連山葬于江華三海
 面五流川子坐之原 戊辰三月二十八日申時
 下棺西山山南車山北 李山長子維恒次子
 德恒長孫衡鎮次 孫華鎮曾孫福賢

其二、女子墳誌石 全高七·六cm 徑 十八·三cm

初娶淑夫人平山 申氏之墓(西三
 月十五日生卒于乙亥三月十六日葬于
 江華三海面五流川 子坐之原戊辰三月
 二十八日申時下棺西 田山南車山北李山
 長子維恒次子德 恒長孫衡鎮次孫
 華鎮曾孫福賢

入室驛의 陽刻 菩薩坐像

秦 弘 燮

東海南部線 入室驛構內에 높이 二二八cm 下幅八六cm 厚二二二cm의 板石 表面에 菩薩坐像이 陽刻된 石材가 保管되어 있다. 이 돌은 同驛 西쪽에 솟은 「애기봉산」에서 解放後에 移置한 것으로 同山은 大小의 岩石이 全山을 덮고 있는 데 이 佛像을 移置해 온 驛員으로 부터 다른 圓刻石佛像이 있었으나 이미 盜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많은 岩石에서 아무 다른 彫刻도 發見하지 못했다.

이 佛像은 매우 弱한 레리 푸로서 像

